PVC충격보강제 고성장 예고

PVC 생산량 증가에 가격까지 안정 … LG화학 독과점체제 성숙

PVC시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국내 PVC충격보강제 시장이 96년 20%대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0년 LG화학의 신규진출과 중국 Weipang의 대리점인 대일소재 간의 지나친 가격경쟁 및 수요처 확보 쟁탈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국내 PVC충격보강제 시장이 95년부터 LG화학과 대일소재, Dow Chemlcal이 각각 특성에 맞는 시장을 분활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생산기업인 LG화학은 96년 1만5000톤을 증설, 총 생산능력을 3만톤으로 늘려 내수 및 수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PVC충격보강제 수급현황

(단위 : M/T, %)

구 분	1994	1995		1996	
		수 량	증감률	수 량	증감률
생 산	7,000	10,000	42.9	15,000	50.0
수 입	8,000	6,000	▽25.0	4,000	▽33.3
공급계	15,000	16,000	6.6	19,000	18.8
내 수	14,300	15,000	4.9	15,500	3.3
수 출	700	1,000	42.9	3,500	3.5
수요계	15,000	16,000	6.6	19,000	18.8

여기에 한화종합화학도 PVC충격보강제 시장의 신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입대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96년 PVC 생산이 95년 90만7000톤에 비해 10% 증가한 99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주택·건설 등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여 PVC충격보강제 수요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PVC사업에 신규참여할 계획으로 있어 PVC충격보강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충격보강제 생산은 94년 7000톤에 비해 42.9% 증가한 1만톤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94년 8000톤에서 25% 감소한 6000톤에 그쳤다.

수입량 감소는 90년까지 국내시장을 독점했던 Dow Chemical이 불투명MMS를 Kg당 2100원에 공급했으나 LG화학과 대일소재에 의해 1700원선까지 떨어지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저급그레이드 시장에서 철수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LG화학의 국내 PVC충격보강제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화학은 국내 최대의 PVC 생산공장을 보유,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고 수입품보다 Kg당 300 500원 낮은 저가정책을 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 LG화학은 PVC충격보강제의 원료인 MMA, BA, SM, BD 등 모든 원료를 자체 수급함으로써 안정적 원료 공급도 큰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PVC충격보강제의 종류는 불투명MBS832, 투명MBS842, PA, IM805, CP 등이며, 고급그레이드로 ABS와 Rubber가 있다.

국내 고급그레이드 충격보강제는 세계 제일의 PVC충격보강제 생산기업인 Dow Chemical이 공급하고 있으나, LG화학과 대일소재도 진출을 준비중이다.

국내 PVC충격보강제의 용도는 Pipe 40%, Sheet 40%, Sash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4년5월까지 PVC충격보강제를 생산해온 신호유화는 공장이전과 수요처 확보 어려움에 직면,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96년 생산재개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6/2/26>